

## 빛진 자 사역

**해**발 4,000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32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이건화, 김성제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뵈었습니다. 선교보고 전에 잠시 금번 방문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나눠주실 때 코비드로 생사를 오고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만년설을 바라보며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에 모든 것이 넘친다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“괜찮으니 염려하지 말라”는 그의 수줍은 용기 같았습니다. 수양관 및 공동체 사역을 염두에 두며 지하수가 터지길 기도제목으로 내어 놓으셨으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.

**영**어권과 함께 9월 캠페션 선데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암전한 김성제 선교사님의 눈이 반짝반짝해지더군요. “도와주세요!” 어린이 구제양육 사역, 캠페션이야기입니다.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는데 캠페션의 도움을 염두에 두고 기도중이었다고 합니다. 알고보니 김 선교사님이 캠페션의 도움을 받은 장본인이었습니다. 625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한 캠페션이 이제 세계를 섬기는 기관으로 성장했고, 빛진 자 한국이 그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. 기도하고 의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

**저**는 총준위원회로서 총회감사를 받기 위해 출타하였다가 8일 저녁 폴란드로 떠납니다. 제가 없는 동안 주일설교는 김태한, 정진부 목사님이 섬길 예정입니다.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는 선교사 가정 160여명, 자원봉사자 100여명, 그리고 바르샤바 한인교회까지 약 300명 참석을 예상합니다. 주일예배는 제가 설교하고 집회 주강사는 김기동 목사님입니다. 헤브론 전체 인솔자는 선교위원장 서정일 장로님입니다.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지원을 받으며 잘 감당하고 돌아오겠습니다.

2022. 7. 3. 임철성 목사 올림